

# 아버지의 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가족

† 찬미 예수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모든 인간들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까지 저와 저희 식구, 그리고 저희 부모형제들을 두루 다 잘되게 보살피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하느님께도 잘못된 것이 많고, 저희 부모님께도 많은 잘못을 한 못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저희 아버지 마지아를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기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마지아의 손이 물에 불은 것처럼 통통 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 그 손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무척이나 잡아보고 싶었던 손이랍니다. 완고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는 좀처럼 머리카락이나 손을 잡거나 쓰다듬어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분주해 보이는 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성적표를 숨기기 시작했던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오히려 아버지와 손잡는 것을 피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은 커녕

악수도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에도 그저 큰 절 한번 올리고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거라” 하며 헤어졌던 우리 부자가 이제는 그 손을 맘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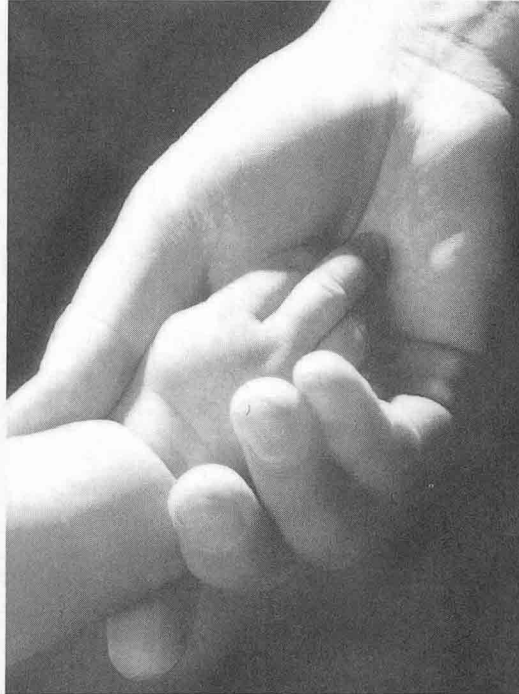
아버지 마지아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는 병원에 입원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잡아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을 이제 또 다시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에 불은 것처럼 통통 부어 올라 잡아보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그 손에 다 몰리어 있는 듯 하여 감히 잡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메달리실 때 손바닥에 못을 박히었듯이 저희 아버지 마지아도 췌장암 말기의 아픔과 고통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나 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고통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소서. 오늘은 종일 혼수상태에 계시면서 암 말기의 아픔과 고통도 표현 못하고 너무나 아픈 나머지 헛소리와 눈물로 저에게 호소합니다.

주님, 극심한 저희 아버지의 고통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내려 주소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손바닥의 고통을 아시듯이 통통 부어오른 저희 아버지 마지아의 고통도 헤아려



주소서.

몇 십 년만에 잡아 본 아버지의 손을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주님, 저에게는 손을 놓는 아쉬움과 서운함보다는 아버지 마지아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바라다보고 있는 제가 오히려 더 가슴이 저리고 슬프답니다.

주님, 이제까지만도 저희 아버지 마지아를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지켜 주셨음에도 감사드리고 있사오니 제발 저희 아버지의 극심한 고통에서 하루 빨리 건져주소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이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 고통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

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속히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알아 듣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